

산과 숲, 우리는 왜 숲을 찾아 산에 오르는가?

참고, 숲으로 둘러싸인 산을 숲과 같은 뜻으로 썼다.

기고자/

1 서 언

가. 우리 겨레와 산과 숲

우리나라에는 산이 무척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산자락에서 낳아 산자락에서 뛰놀며 자라고 산에 드나들거나 산을 보며 살다 죽어서는 산자락에 묻힌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겨레는 산과 더불어 살아 왔고 살고 있으며 두고 두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겨레에 있어 산과 숲은 우리들의 자연의 공간적 테두리이자 우리들 자연의 얼굴을 결정하는 매듭이 된다. 산은 우리 자연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얼굴, 역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사람들의 삶에 숲, 영국사람들의 삶에 바다와 같이 산은 우리 겨레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 자연과 역사의 자연스러운 주인인 것이다.

산은 미래를 담고 있고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산의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 영구적인 타성은 산이 과거지향이자 동시에 미래지향이라 할 수 있다. 산은 선대가 남겨준 틀림없는 과거의 유산이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산은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미래를 신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서 산을 떼어놓을 수 없음은 물론 우리 모두가 산을 가까이 해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다.

나. 21세기의 과제와 산

실질적인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의 새해 첫 새벽, 계룡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명산과 진악산 등 각 고을의 진산 고스락에 많은 사람들이 올랐다. 새 즈문해에 처음 돌아 오르는 해를 맞이 하고자 어둠과 추위와 미끄럼 등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른 것이다.

동쪽 하늘을 쏘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새 천년의 부푼 희망과 잘 살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결의와 집념이 가득했다.

21세기는 많은 발전과 변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예상된다. 모든 질병이 극복되고 가난이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고 질병과 가난이 없는 사회가 되어도 그 핵심에는 자연과 인간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자연이 망가지면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되고 인간성을 잃으면 세상이 거칠어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질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질 좋은 삶을 이루는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연 친화) 사람답게 살며 질 좋은 삶을 엮어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산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생각해 보는 것도 뜻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금년은 UN이 정한 산의 해이다. 인류에게 있어 숲과 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산은 인류에게 나무 숲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대주는 공급원이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고 식량과 약초 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휴식과 관광과 레저의 무대이며 신앙과 신화 문화 예술의 모태가 된다. 이처럼 산은 사람과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인류에게 그 소중한 산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하다. 산 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슬기로운 조화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수기능 맑은 공기 등 우리나라의 산과 숲이 한 해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돈으로 따져서 총 34조 6천억원조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사람 앞에 140만원 풀이 된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왜 산에 오르는가

요즈음에는 산에 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 봄이 되어 산에 진달래, 철쭉이 피며 신록이 싱그러워지고 가을에 단풍이 화사하며 억새가 제 모습을 들어낼 때면 아름다운 산들에 사람들이 넘친다. 그러나 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왜 산에 가는가, 산의 무엇이 좋은가 물으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첫째 아름다움을 보고자 산에 간다.

산은 아름답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선이 아름다우며 그 색깔이 아름답다. 그리고 산은 순수하고 소박하며 자유로움이 있다. 그래서 산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만족과 건강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산에 간다.

산을 찾아가는 동기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초점은 결국 대자연인 산의 아름다움에 맞추어진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만든 노래나 그림이나 조각은 인간이 만든 예술품이지만 산의 아름다움은 신이 만든 예술품이다.

산의 아름다움에는 즐겁게 노래하는 새 소리도 있고, 가지각색의 꽃이 있으며, 바람에 산들 거리는 풀잎이 있고, 흘러가는 구름이 있으며 개울물 소리, 우렁찬 폭포의 물 떨어지는 소리,

특별기고

흘러가는 구름과 안개도 있다.

그리고 산의 아름다움은 철과 때에 따라 해와 달과 구름과 안개, 눈과 비와 어울려 끊임없이 변한다.

이 산의 아름다움은 옮기거나 걸어 놓고 볼 수도 없으며 감추고 전시할 수도 없다. 산으로 찾아가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인간사회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거칠음과 불안 그리고 끊임 없는 싸움 때문에 사회가 메말라져서 공기와 물이 없을 때처럼 마침내 인간사회는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이 만든 예술품인 대자연과 산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산에 간다.

우리 조상들은 산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산에 들어가 살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 간 지어 놓니
반간은 명월이요 반간은 청풍이라
청산은 들일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둘째 대자연과 어울리고 인간다워지고자
산에 간다.

사람은 대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고 태초에

사람의 보금자리는 자연이었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답다. 그러나 인간의 간교한 지혜로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문명은 자연을 이용하여 더욱 크게 발전하면서 자연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다.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살기 어렵게 되고 결국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소본능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듯 사람들은 태초의 보금자리였던 대자연의 일부인 산에 가기를 좋아한다. 자연이 그래도 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산과 바다이다. 바다는 배가 있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산에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사서 자기 집 뜰에 옮겨 놓을 수 없고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높은 산을 낮출 수 없으며 먼 산을 가까이 당길 수도 없다. 차나 비행기를 타고 산에 오를 수도 없고 자기 체력으로 걷고 오르고, 바람과 비와 눈도 맞아야 하며 자기가 가져간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행이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잃은 인간성을 산에서 다시 찾을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시조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무척 자연을 좋아했고 또 인간다웠음을 알 수 있다.

짚방석 내지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라
솔불 켜지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이야 박주 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셋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자 산에 간다.

산행은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활동이면서 좋은 운동이기도 하다. 산행은 산에 가는 것이고 산에서 걷는 것이다. 그래서 산행에는 특별한 운동기구나 기술이 필요 없고, 편을 갈라 겨울 필요가 없는 운동이며, 기록을 재거나 다투어서 이기고 지는 것을 판정할 필요도 없다. 그저 쉽고 편한 운동이다. 그러나 그 운동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숲 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맑은 개울물도 실컷 마시며 하는 운동이며, 사람의 수나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운동인 것이다.

더구나 산행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은 정신적인 면에서 크나큰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을 안겨 준다는 점이다. 대자연인 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산 고스락에 올라 설 때에 성취의 쾌감을 느끼게 되며, 밝고 맑고 바르고 크며 넓은 이른바 호연의 기(浩然의氣)를 느끼게 된다. 세속의 가정과 일터와 거리에서 찌든 머리와 가슴 속의 불쾌함과 불만과 울분을 씻어 내고 (이른바 스트레스의 해소) 새로운 의욕이

일어서 삶은 더욱 활기차게 된다. 그래서 산행은 머리와 가슴 속의 때를 씻어내는 일종의 정신(마음)의 목욕이라 할 수 있다. 육신의 운동이 정신적인 정서와 결합되어 훌륭한 건강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산행은 인간 형성에 있어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결합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매일 산을 보며(日日見山)
그 높음을 기리고 (慕其高)
그 장중함을 배우며 (學其重)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愛其麗)
그 예스르움(변하지 않음)을 벗하라 (友其舊)
하셨다.

3. 산행이란 무엇인가?

산행은 아름다움의 감상이다. 산은 개울, 꽃, 나무와 숲 단풍 억새 바위 등 모두가 아름다우며 그들이 어울려 더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움은 끊임 없이 변한다. 철, 날씨, 구름, 해돋이와 해저름 달에 따라 아름다움이 달라진다.

산행은 산 또는 대자연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높은 곳에 오르는 행동이다.

산행은 산에 대한 경험이며 교육이다. 스스로 산을 겪어보고 알아보고 배우는 것과 아울러

특별기고

행동과 삶을 반성하는 계기도 된다.

산행은 산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산을 정복의 대상이나 산행을 운동의 한 방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산행은 사람과 산 사이에 벌어지는 개인적인 상황이며 극히 주관적인 관계이다. 산행은 개개인의 체력과 의지에 따라 다르며 경관도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행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 세속적이고 비자연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산행은 정신과 마음의 목욕으로 정신적인 압박(스트레스)을 씻어낸다.

산행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며 문명사회에서 퇴화되어가는 일부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대자연과 어울려 호연의 기를 느끼는 정신 운동이 되기도 한다.

산은 그 인내와 침묵 등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한다.

4. 산행과 건강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려운 산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에 다녀서 건강해지는 것도 가벼히 볼수 없다.

산행은 효과적인 전신운동이다. 산에는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가 있고 밝은 햇빛이 있으며 깨끗한 개울과 샘이 있고 싱그러운 숲이 있어 건강에 더욱 좋다. 산행은 단순한 신체적인 운동과

크게 다르다. 산행은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 속에서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고 성취와 만족을 얻으며 안식과 호연의 기를 느끼는 등 정신적인 효과가 크다.

이 정신적인 효과가 신체적인 운동과 결합되어 심신양면의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동(Sports)과도 다른 점이 된다. 운동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지만 산행과 비교할 때 그 질과 차원이 다르다. 산행은 승패를 겨루는 운동과 달라서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성취한다. 비록 상대가 없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같은 운동을 대역섯 시간 계속하는 경우 정신적인 면과 피로의 상태에 있어서 산행과는 크게 다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밝은 햇빛,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싱그러운 숲과 더불어 활동하여 성취와 만족과 호연을 느끼는 산행은 정신적인 효과와 피로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운동에는 한계가 있으나 산행에는 한계가 없다. 산의 아름다움을 찾고 산을 사랑하며 즐기는 산행에 한계가 있을 수 없으며 겨루는 상대를 의식할 필요도 없다. 산행에서 시간은 팔과 다리 등 신체를 지치게 할지라도 정신은 지치게 하지는 않는다. 산행에서 얻는 성취와 만족과 아름다움의 감상은 산행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피로를 인생에 대한 행복과 만족으로 풀어버리는 정신적인 목욕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신체와 정신의 소소한 병들을 참으로 산을 좋아하여 산행을 자주 해서 건강해진 예는 얼마든지 있다.

5. 산의 조망, 그 뜻과 아름다움

가. 우리 국토의 얼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국토의 얼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마땅히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산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고 우리 국토의 모습이며 얼굴이다. 문화와 역사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산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으며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자연 우리 국토의 평면적인 내용과 모습은 각 왕조의 지리지 고산자 김정호를 비롯한 선각자 최근의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서 잘 밝혀졌고 연구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잘 안다. 금강이 어떻게 흐르고 대전이 어디에 있으며 지리산이 어떻게 놓여 있다는 것, 땅 속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있다는 것도 누구나 잘 안다.

그러나 우리 자연의 얼굴 우리 국토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산의 상하 수직으로의 모습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산에 올라서 또는 집이나 길에서 보이는 산을 몇몇 명산 외에는 저게 어떤 산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산인

지를 모른다. 산 위에서 보이는 저 산이 내 고장의 산인가 그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 했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금오산, 팔공산, 금정산, 소백산에 일년이면 수백 만명이 오르내려도 계룡산에서 360도 한바퀴 돌며 보이는 수 많은 산들이 무슨 산인지 몰랐고 거기서 지리산 가야산이 보인다는 것, 북한산에서 치악산, 무등산에서 덕유산, 금오산에서 지리산, 팔공산에서 태백산과 지리산, 금정산에서 가야산과 지리산, 소백산에서 138km나 떨어져 있는 덕유산과 가야산이 보인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리(地理)란 땅의 생긴 모양과 형편을 말한다. 상 하 수직으로서의 자연의 모습 국토의 모습 산의 모습을 잘 살피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 누가 우리나라 지리를 잘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산 위에서 조망을 하며 첩첩 산의 모습들을 살피노라면 산행이 더욱 더 재미있고 뜻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산들, 그 산들의 짜임새(상황)와 그 산들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산의 위치 그리고 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참다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요소

특별기고

이기도 하다.

운장산의 고스락에 서서 동편의 첩첩 산들과 서편의 끝 없는 들판을 바라다 보면 임진왜란 때에 왜 왜군이 곰티재(진안 전주 사이)를 넘어려고 했고 거기서 실패하자 기를 쓰고 다시 배티재를 (대둔산) 넘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북한산 백운대에 서서 한강과 산과 들을 조망하면 한강문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비봉에 신라 진흥왕이 왜 순수비를 세웠고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려 치열하게 싸웠으며 이씨의 조선조가 서울에 서울을 삼은 뜻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점필재는 유두류목에서 북으로 멀리 계룡산이 보인다고 썼으나 나는 믿지 않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리산 또는 계룡산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새벽 문화방송 취재팀과 계룡산 천왕봉에 올라 대둔산 위로 지리산을 보았다. 122km의 거리였다. 대둔산에서 지리산은 일찍이 보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명산마다 고스락에 조망점 (view point)을 마련하고 조망도를 게시해 놓았으며 서점에는 많은 조망에 관한 책과 조망지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산악회처럼 조망 모임이 많아서 산에 올라 저게 무슨 산이다 어떤 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어디서 후지산이 보인다는 등 연구하고 토론한다.

또 일본에는 후시미(富士見)라는 지명도 많다.

일본사람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후지산이 보인다 뜻에서 마을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나라 사랑도 먼저 우리 국토의 얼굴 우리 자연의 모습을 잘 알고 이 국토를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우리 산들의 모습 우리 국토의 얼굴을 더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조망의 뜻 그리고 조망의 신비와 아름다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산행의 측면에서도 조망은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다. 산 위에서 조망은 우리 자연의 모습 우리 국토의 얼굴을 확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망으로 대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밝고 맑고 크며 바르고 넓은 호연의 기를 얻을 수도 있다.

조망은 우주 천지창조의 조화에 대한 인간의 외경을 나타내는 의식이며 우주의 신비와 대자연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피고 자연의 존재 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도 있다.

산에 올라 조망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려와 버리는 것은 대자연에 대한, 우리 국토에 대한 크나큰 불경이다.

"조망"이라는 낱말은 '먼 곳을 바라본다'는 뜻도 있지만 바라보이는 먼 곳의 '경치'라는 뜻도 된다.

1997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 여명, 팔공산의 고스락에서 본 조망은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신비 그 것이었다. 동녘의 천지선(天地線-지평선) 위가 붉으레 물들며 모습을 드러내는 산하, 어둠에서 깨어나는 국토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했다. 그 황홀한 아름다움과 신비에 한 동안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멍한 상태에서 행동이 멎었고 생각도 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있었을 뿐이었다. 내 재주로는 그 색깔하며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그려낼 도리가 없다.

좋은 조망은 날이 샅 무렵 그것도 추운 늦가을과 초겨울이나 많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의 새벽이 가장 좋다. 따라서 대기가 맑고 깨끗하며 동이 틀 무렵 즉 여명의 그 빛과 점차 밝아지는 대자연의 진행은 당연히 아름답고 신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조망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감상하는 것을 겸하기도 한다. 매우 운이 좋아서 빼어난 조망을 할 수 있었던 팔공산, 운장산, 소백산, 금정산, 계룡산, 북한산, 지리산에서의 조망이 너무나 아름다워 녀를 잃었고 남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 또한 몹시 안타까웠다.

나는 아름다움 가운데 여명에 산 고스락에서의 조망이 천하 제일이라 생각한다.

다. 조망의 요령

산에서 다른 산을 조망하고 조망을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요령과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맑은 날을 잡아야 한다. 가을과 겨울 맑고 추운 날의 새벽이 가장 조망이 좋다. 봄 여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대기 속의 먼지가 치워지면 다음 날의 새벽에 조망이 좋다.

둘째 조망산행을 할 때 그 산에서 조망한 조망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청림출판사 발행 조망의 즐거움 또는 평화출판사 발행 아름다운 산 참조) 조망도를 놓고 산의 모습을 대조하며 찾아 나가면 바로 산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셋째 만일 조망도가 없는 산일 때는 미리 지도(국립지리원의 지세도-25만분의1 -가 가장 좋다)를 펴 놓고 오르려는 산을 중심으로(조망점) 이름이 붙어있는 산의 방향(각도)과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그려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조망도에 산의 높이를 반드시 밝혀 놓아야 산을 찾기가 쉽다.

임시로 만든 화살표의 조망도를 조망점에 놓고 동서남북을 고정시킨 다음 일정한 방향으로 돌며 산을 찾는다. 이 때 모습을 아는 산을 중심으로 각도를 재거나 비교해 나가면 더욱 확실하게 산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조망을 할 때 옆으로(가로-횡) 살피기는 쉽다. 세로(종으로)로 산의 원근을 살피는 것이 어렵다. 먼 곳의 산은 원근의 차이가 많은 데도 같은 거리이고 옆으로 같은 산줄기에 있는 산으로 착각하기 쉽다. 지도를 많이 참조하고 세로(종)로

특별기고

산을 보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일찍이 점필재 김종직 선생도 산들을 앞에서 저 뒤로 미루어 살펴나가야 한다고 조망의 방법을 알려 주었다.

다섯째 무엇보다 우리 국토의 얼굴을 알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골동품처럼 보면 볼수록 연구를 많이 할수록 산을 알아보는 안목이 늘게 된다. 조망에 익숙한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이 산을 알아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섯째 준비물-조망도, 지도, 망원경, 필기도구, 나침반, 사진기, 방한복, 물과 간식 특히 추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포켓난로 또는 간단한 휴대용 난로가 있으면 더욱 좋다.

라. 더 멀고 더 좋은 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국토의 모습을 알고 아름다운 우리 자연의 얼굴을 잘 익혀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멀고 더 깨끗한 조망도를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한 사람이 전국의 모든 산에서 보이는 산의 조망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맑은 날을 골라서 멀리 있는 많은 산들을 오르는 일이 사실상 어렵고 산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어렵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별로 현지 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산들에서 보는 조망도를 각각 만드는 것이다. 이 처럼 지역별로 만드는

조망도가 가장 좋을 것이며 노력과 비용도 덜 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4명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조망도를 만들기도 했다. 또 외국처럼 산마다 조망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산에서 보이는 산들의 조망도도 게시해 놓아야 한다.

마. 점필재 김종직의 지리산에서의 조망

지금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산의 모습 즉 우리 국토의 상하 수직으로의 모습을 알아내고 지리산에서 조망한 바를 기록에 남긴 훌륭한 선각자가 530년 전에 계셨다.

영남학파의 태두 점필재 김종직은 그가 함양 군수로 있을 때인 조선조 성종 3년(1472년) 나이 마흔 살이 되던 해 음력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지리산에 올라 두루 둘러보고 '두류기행록'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 글에 지리산에서 조망한 많은 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점필재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을 때는 비가 내린 뒤여서 조망이 매우 좋았다 한다. '푸르고 누런 빛이 엉겨붙어서 흰 무지개가 가로 켜진 것은 진주의 물이며 물 가운데에 점을 찍은 듯이 별려 가로 비끼고 곧장 솟은 것은 거제의 못 섬인 듯 하다'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한편 '멀리 바라보면서 그 요령(내용)을 알지 못하면 나무꾼이 구경하는 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먼저 북쪽을 바라보고 다음은 동쪽으로

그 다음엔 남쪽 이어 서쪽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미루어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했다. 멀리 바라보며 산을 알아보는 것(그 내용)이 식자의 도리임을 말하고 산을 앞에서 뒤로(세로) 미루어 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망의 요령까지 밝힌 것이다.

점필재가 밝힌 조망의 내용은 거의 정확했다. 옛날 별다른 장비나 자료 또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그토록 정확하게 짚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점필재가 경상도와 선산의 지도지를 만든 경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영명한 데다 국토 사랑이 남다르지 않았다면 그 옛날에 그 많은 산을 알아보는 조망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점필재가 조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 쪽

- 가까운 산 - 황석산(안음) 취암산(함양)
- 먼 산 - 덕유산(무주) 계룡산(공주)
- 주우산(금산) 주줄산 즉 운장산
- 수도산(김천) 가야산(합천)

동북쪽

- 가까운 산 - 황산(산음) 감악산(삼가)
- 먼 산 - 팔공산(대구) 청량산(안동)

동 쪽

- 가까운 산 - 도굴산(자굴산, 의령)
- 집현산(진주)
- 먼 산 - 비슬산(달성) 운문산(청도)

원적산(원효산, 양산)

동남쪽

- 가까운 산 - 외룡산(사천)

남 쪽

- 가까운 산 - 병요산(하동) 백운산(광양)

서남쪽

- 먼 산 - 팔전산(팔영산, 고흥)
- 서 쪽**
- 가까운산 - 황산(운봉)
- 먼 산 - 무등산(광주) 변산(부안)
- 금성산(나주) 위봉산(고산)
- 모악산(전주) 월출산(영암)

서북쪽

- 먼 산 - 성수산(장수)

위에서 취암산, 병요산은 알 수 없는 산이고 안동의 청량산, 고산의 위봉산, 나주의 금성산, 부안의 변산은 지리산에서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되지만 현재 그 누구도 지리산에서의 조망에서 그 보다 착오가 적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다. 점필재의 해안이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바. 계룡산에서의 조망

맑은 날 계룡산 천왕봉에 서면 북쪽으로 먼저 천안의 흑성산부터 볼 수 있다. 오른 편으로 돌아가면 갑하산 저 뒤 멀리엔 천황봉에서 문장대를 거쳐 모봉까지의 속리산(보은 상주)줄기가 한눈에

특별기고

보인다. 이어 계족산 뒤로 구병산(보은)이 보이고 동쪽 고리산 오른 편으로 상주의 갑장산이 있으며 도덕봉 뒤로는 황간에서 가까운 백화산의 포성봉과 주행봉이 있다. 포성봉에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머무르며 백제 패망의 소식을 들었다는 궁터와 금돌산성이 있다.

서대산(금산) 왼 편에 김천 영동의 경계에 있고 명찰 직지사로 유명한 황악산이 보이고 오른 편으로는 각호산과 민주지산(영동 무주) 줄기가 보이며 그 앞에 천태산(영동 금산)이 있다.

가야산(합천)은 민주지산 줄기와 대덕산(김천 무주) 사이 30번 국도가 지나는 낮은 지대 저 뒤로 보인다. 다음에는 덕유산(무주) 줄기가 장엄하다. 금산의 진악산 뒤로 향적봉에서 남덕유산까지의 덕유산 줄기가 한눈에 보인다. 그 사이에 무룡산과 샷갯봉도 뚜렷하다.

계룡산에서 지리산의 천왕봉(산청)을 보는 것은 조망의 크나큰 즐거움이다. 그러나 지리산을 보려면 대둔산(완주 금산 논산)의 뒤를 잘 살펴야 한다. 대둔산의 윤곽을 저 뒤에서 희미하고 얇은 그림자가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계룡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거리는 122km가 된다.

대둔산 오른 편 뒤로 운장산(진안 완주) 줄기가 구봉산에서 북두봉을 거쳐 서봉까지 한 줄로 보인다. 다음에는 완주의 연석산, 운암산, 원등산, 위봉산, 만덕산이 연이어 있다.

남쪽을 지나 금산사로 유명한 완주 김제의 모악산이 보이고 백제의 미륵사 터가 있는 익산의 미륵산을 지나면 이제 충청남도의 산들이 이어진다. 연천봉 뒤에 부여의 만수산 청양의 칠갑산이 보이면 다음에는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흥성, 보령의 우람한 오서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더 오른 편으로 돌아가면 덕송산(예산), 용봉산(홍성 예산), 가야산(홍성 서산) 등 내포의 명산들이 있다.

으젓한 천안의 광덕산 줄기를 보고 나면 북쪽을 지나 다시 흑성산을 보게 된다.

5. 청소년과 산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포악해지며 환각제 사용이 많아졌고 가출하는 소년 소년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무기력하고 고생을 모르며 참을줄을 모른다고 못마당해 하는 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이 비뚤어지고 잘못 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어른들이 훌륭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며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유족해지는 것에 따라서 정신문화의 발전이 발을 맞추지 못한 것도 크나큰 문제다. 그래서 윤리 도덕이 물러지고 물질과 금전 만능의 생각들이 퍼져서 사회의 한 쪽이 어두어지고 청소년들은 비뚤어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야 할 교육에도 잘못이

많다. 입시위주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밀려서 도덕과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며 청소년들의 개성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의 정신을 심하게 압박하여 기를 펴지 못하게 한다. 교실과 가정 외에 그 어디에도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다.

가정에도 문제는 많다. 자녀가 하나 돌밖에 없는 온상과 같은 핵가정에서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귀여움을 받으며 보호되고 있고 자녀들의 요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져 그들은 고생도 어려움도 절약할줄도 모르고 참는 습성은 더더구나 모른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어렵게만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문제의 주 원인인 물질문명 교육 가정의 문제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는 자연스러움이 없고 인간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며 가정에 있어서도 참다운 사랑과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성과 인간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산 또는 산행은 청소년지도에 바탕이 되어야 할 자연성 그리고 인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산은 자연 자체이며 산행은 가장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많고 많다. 그 아름다운 산에 산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답다. 청소년지도에 산과 산행을 활용하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산행을 하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산에 올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 하며 맑고 바르고, 크고, 넓으며, 높은 호연의 기를 기르고 성취감을 맛보며 사람다우며 서로 도움줄 알고 험한 산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슬기도 배우면 얼마나 좋을가'를 생각한다.

6. 산행문화의 정립과 잘못된 산의 이름들

문화는 감상하고 음미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 자체이다. 우리는 그저 산을 좋아하고 산행을 즐기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산을 알고 그 산의 자료를 살펴야 하며 산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위험 재해 날씨 등에 대하여도 대비를 해야 한다. 산행에도 질서와 여러 가지 행동방식이 있다. 산행을 즐기는 데도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리며 사진을 찍고 새와 식물 약초 동물 그리고 꽃을 연구하며 조망을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산행도 문화로서 정립하고 발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산행의 문화를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연구도 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도 시켜 나가야 한다.

산의 이름을 바르게 밝히는 것도 산행문화의 한 몫이다.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산의 이름들이

특별기고

많다. 산의 이름이 잘못 된 원인은 일찍부터 우리 글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산의 이름들을 억지로 한자화 하거나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다.

산의 이름이 잘못 된 유형을 가려보면 대개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산의 이름을 한자화 하면서 그 뜻에 알맞는 한자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그 음을 한자로 쓴 것이다. 예를 들면 '벚 가리' '나뭇 가리'하는 '가리'처럼 생겨 '가리산'이라 한 것을 한자로 쓰면서 '가리'라는 마땅한 한자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음이 같은 한자를 써서 '加里山' 또는 '加理山'이라 한 것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고치기가 아주 쉽다. 그저 한글로만 쓰면 된다.

둘째 순수한 우리말로 된 이름을 뜻이 같은 한자로 고쳐 쓴 것이다. 옛날에는 매가 맴도는 산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봉' '수리봉'이라는 이름이 많다. 이 이름을 매라는 뜻의 응(鷹)자를 써서 응봉(鷹峰)이라 한 것이다. 거창에 '갓걸이산'이 있다. 이 것을 지도에는 '괘관

산(掛冠山)'이라 써놓고 있다. 그것도 '갓을 걸어 놓은 산'이라는 뜻이다.

셋째 순수한 우리말 이름의 반은 한자로 고치고 반은 마땅한 한자가 없어 음만을 따서 쓴 튀기형의 이름이다. '두메 산골의 큰 산'이란 뜻의 '한듬산'을 '한'은 '대(大)'로 고쳤는데 '듬'이라는 뜻의 한자는 없다. 그래서 '듬'이라는 소리에 가장 가까운 '둔(菴)'자를 써서 '대둔산(大菴山)'으로 된 것이다. 삼국시대 말에 월출산을 '월나산(月奈山)'이라 한 것도 이 것과 같다.

넷째 아무 뜻도 유래도 없이 멋대로 고친 것과 새로 지어 붙인 이름이다. '성이 있는 산 위로 달이 뜬다' 해서 '달이성'인데 별 성(星)자를 써서 '월성봉(月星峰)'이라 한 것은 차라리 괜찮다. 우리의 성산인 강화의 '우두머리산' '머리산' 또는 그 옛 말인 '마리산'은 불교용어인 '마니산(摩尼山)'이라 고쳐졌고 그 것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하루 빨리 순수한 우리의 고운 산 이름들 되찾아야 한다. **산학**



기고자 김 흥 주 ... 경력 사항



1. 42년 간 교직에 종사하며 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하였다.
2. 산행도 문화로서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산에 관한 책 5종 7권을 저술 간행하였다.
 - 가) 아름다운 산 1992
 - 나) 한발 그 언저리의 산 들 (1)-1992, (2)-1996.
 - 다) 한국 51 명산록 (1) (2)-1996
 - 라) 금산의 산 들-1996
 - 마) 조망의 즐거움-1999
 - 바) 산행문화와 웰빙 라이프-2005
3. 교직 퇴직 뒤 산행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소산산행문화연구소'를 개설 운영하며 산 관계 월간지에 산에 관한 글의 연재, 강연, 방송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 가) 연재
 - 월간 산(조선일보) - 조망의 산행(2000.1월부터 2007 5월까지)
 - 은발의 산행(2002.1월부터 2005. 5 월까지)
 - 사람과 산(산악문화사) - 은발의 산행, 낮은 산 좋은 산 등 1993년부터 2002. 3월까지
 - 대전 근교 산행(2004. 1월부터 2006.12.까지)
 - 나) 방송 - mbc(대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 kbs(대전) 2002. 3월부터 현재까지
 - 기타 - 수시 출연
 - 다) 강연-대학 교원연수원 등 연수원 산림청등에서 강연
 - 라) 중도일보 산 이야기(대전근교 산, 산 관련 칼럼) 매주 금요일 전면 연재 (2007. 3.부터 9월 현재까지)
4.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토의 상하 수직으로의 모습인 산의 모습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밝혔다. 31개의 산에서 360도를 돌며 사진으로 찍어 '조망의 즐거움'이란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북한산에서 치악산, 계룡산에서 지리산, 팔공산에서 태백산, 소백산에서 138km 거리의 가야산 덕유산 등을 확인 하였다.

해가 뜰 무렵에 가장 멀리 볼수 있기 때문에 먼 산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추운 초겨울에 깊은 산중의 산을 밤 중에 홀로 올라 다녔으며 그것도 하나의 산을 평균 7회 씩 200여회를 올랐다. 엄청난 고생과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5. '우리는 왜 산에 오르는?' '산이 왜 좋은가?' 등 산행철학 분야를 개척하였다.
6. 위와 같은 활동으로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TV-50분)'로 방영되었으며 (2002. 2 25)
SBS 모닝와이드로 방영하였고, (1999. 7. 18.) TJB 인물탐험(2007. 7.15.) TV 60분 방영.